

# 낙농육우산업과 TMR



윤 민 호

지리산 낙농축협조합장

**우**리나라의 낙농육우 산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고 각 부문의 수입개방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문의 일이 서서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우부문에 있어서 냉장육의 수입과 생우 수입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육우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우리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대비하여 미흡하나마 정부의 지원하에 축사의 개량과 규모의 확대, 종축의 개량, 사양관리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과 진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생산원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할 사료부문의 일은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수입곡물에 의한 배합사료로 일관되게 의존되어 와서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 아닌 우리나라의 축산업 자체가 사상누각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느낌이다.

낙농육우산업이 기타의 축산업과 다른 이유는 인간

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초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이러한 초자원의 이용은 국토의 보존 및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낙농육우산업이 기타의 축종에서와 같이 곡류 사료를 이용하여 육류로 바뀌어서 먹는다는 개념하에서 탈피하여 아름다운 국토의 보존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 나라에 무진장한 초자원의 이용이라는 대국적인 개념에서 보다 많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의 장래는 물론 수입이 개방되고 세계가 한데 어울려지는 이순간에서 보면 황금빛 장래를 약속하고 있지만은 않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석회석지대의 사막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농업국을 건설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료 문제의 해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같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배합

사료가격의 인상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고 원유가격이 사료값 인상 부문만큼 계속 인상될 수 있다면 편하게 배합사료에 의존해서 낙농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요즘 돌아가는 사정은 그렇게만 될 것 같지는 않다.

배합사료를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나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같은 사료를 이용하더라도 배합사료를 먹이기전에 조사료를 약간이나마 먹이고 배합사료를 먹여주는 것과, 배합사료를 먹이고 조사료를 나중에 먹이는 것과, 모두 섞어서 먹이는 것 하고는 사료효율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동안 TMR이라 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왔고, 많은 부문의 연구도 되어져 왔다.

때로는 TMR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왔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TMR은 기계적인 부분과 부존자원 사료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사료라도 조사료와 곡물사료를 꼭 무조건 섞어서 먹이면 이익이 된다는 점하고 이중에 들어가는 곡류사료, 배합사료부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소가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대체시켜서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소한마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극대화시킨다는 개념에서 TMR은 접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TMR이라 하여 무조건 배합사료를 금기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그대로 TMR을 완전한 개념의 사료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손쉽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부문을 생산하고,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는 상당수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중 최대한 싸고 질좋은 원료를 구하고 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배합하고 부족되는 것은 또한 배합사료를 보충해서 전체를 섞어서 먹이면 되는 것이 TMR라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의 장래를 생각하면 현재의 배합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양관리 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곡물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곡물이 무기화된 시대에서 우리나라 낙농업의 유지 발전은 사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수가 없고, 사료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TMR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의 장래를 생각하면 현재의 배합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양관리 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곡물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곡물이 무기화된 시대에서 우리나라 낙농업의 유지 발전은 사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수가 없고, 사료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TMR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조사료든 산업 폐기물이든 소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 주변에서 찾아서 그 이용에 끝없는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이용에 있어서 어떠한 비율로 어떠한 양을 소에게 먹여야 할 것인가? 또한 부족되는 부문의 원료는 어떻게 값싸게 구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농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협동조합과 대학과 각 연구기관이 힘을 합한다면 이러한 것에 관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러한 부문의 필요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고, 필요는 수요를 창출해 낼 것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인 사료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TMR은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장래를 결정할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낙농인들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